

강릉시 유원지 조성으로 관광도시 기반마련 박차

강릉시는 최근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관광광객이 체류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현·사천 유원지 2개소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유원지는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락·휴양시설로, 유희시설과 휴양시설, 편의시설, 특수시설, 녹지 등을 포함해 조성될 계획이다.

안현유원지 조성사업은 안현동 466번지 일원 188,998㎡ 부지에 총사업비 561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지난해 8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준비단계를 거쳐 올해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은 숲속놀이터, 실내테마놀이터, 숲속광장, 스테이 등 체험과 휴양이 공존하는 복합유원지로 단계별로 조성되며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우선 2027년까지는 아트스페이스, 웰컴센터, 휴양시설인 스테이 등 핵심 건축공사를 대부분 완료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단순한 경관 관람을 넘어 수준 높은 전시문화와 고품격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사천유원지는 사천면 사천진리 일원 102,919㎡ 부지에 총사업비 8,082억 원을 투자해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상반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두 곳의 유원지가 조성되면 강릉시는 부족했던 체험거리와 숙박시설이 확충되어, 스쳐가는 관광도시가 아니라 각종 시설을 체류하고 즐기면서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 마을세무사 운영 시민 세금 고민 덜어준다

동해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에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에서 활동중인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를 우선으로 국세·지방세 전반과 지방세 불복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현재 동해시 마을세무사는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세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을 총 92건 실시하며, 시민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2026년 1월부터 연중 상시 운영되며, 전화 팩스를 통한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홈페이지, SNS, 동해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3월 납세자의날과 5월, 10월 천곡동 및 전통시장 일원에서 마을세무사 운영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 강릉~삼척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5시간대에서 3시간 30분대로 진입,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시대' 개막

삼척~동해구간 약 4km 터널, 지하 노선 중심 설계로 도시단절 문제 최소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월 12일(목) 오후 2시에 열린 기획예산처 2026년도 제1회 재정평가위원회에서 '강릉~삼척 고속화 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릉~삼척 고속화 철도'는 안인 신호장부터 삼척역까지 총연장 45.2km 구간을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50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고성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철도망 480km 가운데 유일한 저속구간(시속 60~70km)을 고속화하는 것으로, 강릉~부산 이동시간이 기존 약 5시간에서 3시간 30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남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동해안 광역 교통망 구축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성 도의장은 "그동안 강원도는 철도 기반이 부족한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수도권과 강원을 연결하는 'D자형 철도망'이 구축됐다"며 "완공되면 기업 유치는 물론 강원특별

자치도 발전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이번 동해선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로 동해선의 유일한 저속구간을 고속화 하겠다는 시민과의 오랜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예타통과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 효과와 함께, 지난해 영영운행을 시작한 '동해선 삼척~동해~포항 구간'과 서울·강원 영동권을 오가는 KTX 노선의 폭발적 수요와 맞물려 물류·관광·산업 등 전반에 걸쳐 동해안권의 활력을 대폭 증진시키고 동해역·묵호역·삼척역을 명실상부한 환동해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자나깨나 용문~홍천 앞으나 서나 강릉~삼척 철도였는데, 드디어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었다"며, "지난해 7월 직접 부산까지 답승하며 느꼈던 저속 운행 구간이 이번사업으로 5시간대에서 3시간 3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들어서 대형 SOC 8번째 성과로 8전 8승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며, "이를 모두 합치면 약 12조 원 규모로 사동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릉·동해·삼척 13개 특구 개발사업 3조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울산·경북·강원에 분산된 6개 주요 수소거점을 연결하는 수소산업 벨트와 동해안 117개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관광벨트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도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강원·부산·울산·경북 1,400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조 1,50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26년도 국비 용역비 10억 원이 확보돼 상반기 중 후속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속초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운영체계

속초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는 시금고로 한정해 운영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들의 계좌 개설과 금융 이용상의 제약과 현장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속초시는 2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금고 외 금융기관인 중앙·남부·설악·북부·동명·금강새마을금고와 속초·대포수협, 속초신협 총 9명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개별 법인 형태의 지역조합 금융기관으로서 동일 조합 내에 여러 금융기관이 존재하더라도 1개 금융기관이 대표로 협약을 체결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포함해 동일 조합에 속한 다른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참여 금융기관별로 각 1명의 대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한상기 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박해철 속초수협 조합장, 유현재 속초신협 이사장이 각 금융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의 개설·관리,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과의 연계, 보조금 집행 내역의 체계적 관리 등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참여하게 된다.

속초시는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의 다각화가 금융기관 간 경쟁이나 서열화를 지향하는 방식이 아닌, 자적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개방적 운영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영월군, 문체부‘2025 올해의 문화도시’선정

영월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5년 '올해의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강소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번 선정은 전국 30개 법정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엄격한 성과 평가 결과로, 영월군은 폐광 지역의 한계를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주민 주도의 탄탄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한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다.

지난 2022년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영월군은 '문화충전도시 영월'이라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과거 자원을 캐내던 '광산(鑛山)'에서 문화의 빛을 발하는 '광산(光山)'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아, '어두운 석탄광산에서 빛나는 문화광산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차별화된 사업을 펼쳐왔다.

문체부는 영월군이 지역 특성을 살려 광산문화를 재조명하고 기록물을 출간하는 등 '문화광산도시' 브랜딩을 성공시킨 점에 주목했다. 또한,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생활실험실'의 경우, 참여자 수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압도적인 주민 참여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최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전략도 돋보였다. 대규모 시설 건립 대신 9개 읍·면 전역의 유휴 공간을 재생해 67곳의 '우리동네 문화충전소'를 구축, 촘촘한 문화 거점을 연결했다. 이를 통해 군정소재지 중심의 문화 편중을 해소하고, 방치됐던 영월역 앞 '진달래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15분 문화 생활권'을 현실화했다.

홍천군, 맞춤형 영양상담 건강한 식생활 지원

홍천군보건소는 오는 3월부터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에게 가정방문 영양 관련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1:1 맞춤형 영양교육과 개별 상담, 영양 보충 식품을 제공하여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상태 불량 등의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건소 영양사가 사업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방문 시 ▲보충 식품 활용 방법 ▲보충 식품 보관 상태 점검 ▲대상자별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영양 관

리 ▲맞춤형 영양상담 등 영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양 보충 식품은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이다.

분유, 쌀, 감자, 달걀 등으로 구성된 보충 식품 패키지를 대상자별 구분(영유아, 임신부 등)에 따라 9개월간 매월 2회 공급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영양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경우는 최대 1년까지 서비스를 연장하여 제공한다.

사업 대상자는 ▲홍천군 거주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신부와 출산부, 72개월 이하 영유아이며, 연중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평창군, 2026년 대관령 눈꽃축제 연계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스탬프 투어 코스 완주 시 '평창 여행자카드' 증



대관령 눈꽃축제 기간을 맞아 평창군은 오는 2월 13일(금)부터 2월 22일(일)까지 축제와 연계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대관령 눈꽃축제장을 중심으로 인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 단순 축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반으로 자발적인 이동과 체험을 유도하여 축제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 촉

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코스 인증 지점은 ▲대관령 눈꽃축제장 ▲평창올림픽플라자 ▲실버벨 교차 ▲대관령관광안내센터 등 총 4곳으로 구성됐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K스탬프투어 앱을 통해 모바일로 진행되며 인증 장소 방문 후 사용자 위치(GPS)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온라인 스탬프를 인증

하는 방식이다. 대관령 눈꽃축제장과 올림픽플라자에서는 현장 방문 후 카메라 촬영 후기 등록, 대관령관광안내센터에서는 코스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가 필수 인증 미션으로 운영된다.

모든 코스를 완주한 참여자에게는 완주기념품이 제공된다. 관내 거주자는 스포츠 타올과 관광 마그넷을 제공하고, 관외 거주자는 평창 여행자카드(1만 원)와 관광 마그넷을 제공한다.

평창 여행자카드는 평창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체크카드로, 1만 원이 충전된 상태로 제공돼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 대규모 할인 판매장과 리조트, 호텔 등 기업형 숙박 단지 내 매장 및 유흥성, 사행성 서비스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평창군은 "대관령 눈꽃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통해 인근 주요 관광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벤트 혜택과 즐길거리로 평창군의 매력을 알리겠다"라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